

기억의 재구성과 반성의 문학

- 베트남전쟁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

김경민*

|| 차례 ||

- I. 집단적 가해행위에 대한 부인(否認)의 문화
- II. 여성을 향한 전쟁/군인/남성의 폭력
- III. '따이한 제삿날'로 기억되는 베트남전쟁
- IV. 사회적 금기에 대한 위반과 새로운 모럴로서의 문학

【 】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가해행위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침묵과 금기의 대상이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해자로서의 실상이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 속에서 베트남전쟁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패배한 전쟁에서의 가해행위는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 속에서 베트남전쟁은 공산화의 위기를 막아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 점만 부각되었고 한국군의 가해행위는 배제와 외면의 대상이자 함부로 공론화해서는 안 될 사회적 금기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역사 이외의 기억이나 발언은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과 같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문학은 이러한 금기에 맞서 공식 기억이 배제하고 억압한 대상을 기억하고 재현하며 대안적인 기억을 담아내는 '대항기억'의 공간이다. 황석영의 『낙타누갈』과 『돌아온 사람』, 송기원의 『경외성서』, 안정효의 『하얀 전쟁』과 방현석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 등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적 폭력과 만행,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라이 따이한 문제를 비롯해 베트남을 잡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무자비한

*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조교수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통해 당시 한국군의 가해행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비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부끄러운 치부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대항기억을 만들었다. 역사나 기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기에 문학을 통해 구축된 대항기억 역시 얼마든지 새로운 공식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기억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모럴의 정립을 수반한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전의 공식기억이 영웅과 애국자의 이미지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기억에서는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의 모습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곧 그러한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라는 새로운 모럴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베트남전쟁, 사회적 금기, 공식 기억, 대항 기억, 민간인학살, 전시공간

I. 집단적 가해행위에 대한 부인(否認)의 문화

여전히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불편해하며 그것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한다.¹⁾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논커녕 국제적 기준과 관례 등을 들먹이며 소녀상을 문제 삼는 일본의 이런 태도가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무례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2010년 공지영이 발표한 단편 『맨발로 글목을 돌다』에도 이렇게 얽치었고 무례한 일본인들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책을 번역한 인연이 있는 H를 취재하러 일본으로 가기 전날 그와의 첫 만남을 떠올린다. 일본인 H는 대학교 3학년 때 해변에서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북한으로 납치된다. 그곳에서 한국말을 익힌 그는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번역 일을 하고 있다. H의 이런

1) 가까운 예로 2018년 5월 외신기사 간담회에서 일본기자가 한국의 정치인에게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언제 철거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과제이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관례에 비취볼 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이한 이력 덕분에 일본 기자와 출판사 관계자들이 주인공에게 던지는 공통된 질문은 한국인으로서 H의 납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그 질문에는 너도 H를 납치한 북한과 같은 조선인이지만 아니냐는 편견과 비양이 담겨 있다. 질문에 대해 주인공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인간이 인간의 생을 폭력으로 뒤바꿔놓는 일을 가장 증오하고 있다”라는 준비된 답을 내놓는다. 그런데 그 순간 주인공은 몇 년 전 갔던 ‘나눔의 집’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질문을 한 일본인들을 향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묻는다. 주인공의 물음에 해썬해진 일본인들이 내놓는 대답은 “그거야 아직 역사적으로 해명된 일도 아니고……”였다.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던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는 소설에서만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에 맺은 협정으로 법적 책임은 이미 다 이행했으며, 일본 정부와 일본군 차원에서 강제로 동원했다는 자료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런 반응은 스탠리 코언이 지적한 부인(否認)의 전형에 해당된다. 인권 침해 문제의 가해자나 목격자들이 내놓는 반응들 가운데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실 여부는 인정하되 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가령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 부수적인 피해였으며, 강제추방이 아니라 인구이동이라는 식의 부인,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이나 함의를 부정하거나 현실적 불가피함을 이유로 들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방식 등이 모두 코언이 지적한 부인에 해당한다.²⁾ 정부와 군 차원에서의 강제 동원에

2) 인권침해 상황에서 가해자나 목격자들이 보이는 ‘부인’ 반응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

대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존한 주장일 뿐이라는 반응이나 일본군의 관여는 인정하지만 불법성은 없었다는 식의 해석은 모두 가해자가 보이는 부인의 전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런 반응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은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인 것처럼 일본에 대해 불쾌함과 분노, 더 나아가 모욕감을 느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그녀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일 것이다. 오늘날에는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은 상당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이 모두 인권 문제의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 속 누군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이야기에 몰입하곤 한다. 동일시는 내면의 심층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때 인권 문제처럼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선명한 구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연한 심리일 것이다. 가해자로서 받을 도덕적 죄책감이나 타인으로부터의 비판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불편한 정서나 부정적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이다. 타인의 고통도 마주하기 힘들어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자신의 치부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며, 특히 국가나 사회 전체가 가해행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로 그동안 우리 역시 가해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애써

명은 스탠리 코언의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창비, 2009) 1장을 참고할 것.

외면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그러한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금기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불편해하고 꺼리는 것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인 금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저질렀던 가해행위이다. 199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가해자로서의 한국의 실상이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이 세계사적으로는 물론이고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기억 속에서 그 사건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야당이 반대하였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파병을 하였다. 베트남 파병은 도미노처럼 퍼지는 공산화의 위기를 막아내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는 데도 기여하였다. 미국의 군사 원조와 차관, 경제 지원, 파견 인력의 송금,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은 196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³⁾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기록이다. 공산화

3) 『한국사』, 교학사, p.324.

또 다른 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였고,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 1964년 외과 병원 인력 및 태권도 교관단 파견에 이어 1965년 전투병이 파견되었다. 전쟁 특수 속에 한국의 민간 기업들도 진출하였다.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각서가 체결되었다. 베트남 파병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고엽제 피해자와 라이파이한(한국 베트남 혼혈인) 문제 등을 남겼다.”(『한국사』, 미래엔, p.264) 고엽제 피해와 라이파이한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 기업의 진출과 공산화 저지 등 성과 위주로 기술되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의 위기를 ‘막아내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기여’하였으며,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측면만으로 가득한 서술이다. 심지어 이마저도 없는 역사 교과서도 있다. 절대적인 편향과 상당할 정도의 외면과 침묵, 이것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우리의 공식적인 기억의 민낯이다. 1999년 무렵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의 가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공식적인 기억의 형태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금기의 대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편집과 조작, 통제의 방식으로 특정 요소만을 공식적 기억으로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에 맞서 공식 기억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요소, 즉 의도된 망각의 영역에 있던 것들을 기억하고 담론화하는 것은 오랫동안 문학이 담당해 온 역할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문학은 사회적 금기와 억압에 맞서 공식 기억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항기억을 구성하는 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기억에서 배제되고 금기시된 베트남전쟁의 다른 모습을 문학은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하고 있는가?⁴⁾

4) 베트남전쟁을 다룬 소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간 이루어진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 연구는 대개 특정 작품을 분석하거나 소개하고 있는 작품론과 당시의 정치, 사회적 담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베트남 작가가 쓴 베트남전쟁 소설과의 비교 연구 등이 주를 이룬다. 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호웅, 「베트남 민족해방투쟁의 안과 밖-무기의 그늘론」, 『외국문학』 22, 1989; 송승철, 「베트남전쟁 소설론」, 『창작과 비평』 80, 1993; 이경, 「전쟁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하안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14, 1993; 최원식,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97; 김경수, 「자기위안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진단: 베트남전쟁 소설의 상상력」, 『서강인문논총』, 2004; 정찬영, 「베트남 전쟁의 소설적 공론화: 하안전쟁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39, 2002; 정찬영, 「사실의 재현과 기억, 연대를 위한 조건: 무기의 그늘론」, 『현대문학이론연구』 35, 2008; 정찬영, 「한국과 베트남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담론 연구」, 『한국문학논총』 58, 2011; 장윤미, 「월남전을 소재로 한 한국 소설의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19, 2009; 이훈, 「베트남

II. 여성을 향한 전쟁/군인/남성의 폭력

베트남전쟁은 세계사에서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⁵⁾ 8년 6개월 동안 약 33만 명이라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작가의 베트남전쟁소설에 대하여, 『한국베트남학회』 6, 2005; 이경재,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기억의 변모 양상』, 『현대소설연구』 64, 2016; 박진임,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의 특성과 참전 한국군의 정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3; 정재립, 『황석영 소설의 베트남전쟁 재현 양상과 그 특징』, 『한국학연구』 44, 2013; 장두영, 『베트남전쟁 소설론: 파병담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5, 2008 등이 있다.

- 5)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인들이 30년 전쟁 혹은 10,000일간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베트남이 1945년 8월 혁명 이후 1975년 미국이 철수할 때까지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독립과 통일을 위해 싸운 전쟁을 일컫는다. 즉 베트남전쟁은 연달아서 일어난 두 개의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전쟁은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다음 8월 혁명으로 성립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다시금 베트남지역을 자신의 식민지로 하려던 프랑스와 싸운 것이다. 이 전쟁은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를 끝으로 프랑스가 물러나면서 끝이 났다. 두 번째 전쟁은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두려워 한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고 그 결과로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 북베트남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남쪽에 있던 베트남과 남베트남군 및 미국 사이에서 발생한 기나긴 싸움을 말한다. 이 싸움을 베트남에서는 항미구국전쟁이라고 부른다.”

베트남전쟁에 대해 이렇게 긴 설명을 옮겨놓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베트남전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반성의 의미다. 가해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의 베트남전쟁은 단편적인 이미지나 낭만적인 환상으로 가득한 영화의 한 장면이나 노래말의 한 구절로만 재현될 뿐, 전쟁의 배경과 역사, 구체적인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생긴 오해나 잘못도 있다. 가령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베트콩’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다. 원래 남베트남 쪽에서 활동하던 민족해방 전사들을 가리키는 말은 ‘베트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베트콩’으로 부른다. 이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라는 뜻으로 그들을 경멸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설 인용이나 문맥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베트남전쟁’이라는 표현 역시 베트남에서는 이 명명법이 미국과 서구의 관점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과 견해에

군대를 파견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실제로 독자적인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실제로 파병이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라는 외교적 이유와 전투 경험이라는 국방상의 이유, 국가의 경제적 실익과 박정희정권의 정통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물론 모든 결정이 국가의 강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개개인들의 사연 또한 다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모든 이들에게는 국가를 위해 싸우려간다는 대의명분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로 이들에게는 어떠한 폭력과 일탈행위도 정당화되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가부장제 사회의 암묵적 동의 아래, 국가 안보라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남성은 우월한 존재로,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이자 남성으로 상징되는 국가 혹은 민족의 소유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여성에 대한 군인(남성)의 폭력과 착취는 정당화되었고, 이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일상화된 전쟁터에서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많은 한국 작가들에게 베트남전쟁은 단지 상상으로만 구현된 허구의 세계만은 아니었다. 베트남전쟁을 다룬 소설을 쓴 몇몇 작가들에게 그 전쟁은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기에 이르는 극단의 경험을 했던 실제의 공간이었다.⁶⁾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황석영이다. 제대 후 이듬해에 발표한 『탑』과 『돌아온 사람』, 그리고 『낙타누갈』과 『무기의 그늘』이 모두 생생한 베트남전의 참상

기반해 ‘항미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 역시 ‘항미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겠으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서 기억하고 재현하는 전쟁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베트남 내부의 관점이 아닌 바깥에서 명명된 ‘베트남전쟁’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베트남전쟁과 베트남에 대한 설명은 최정기의 논문(『민간인 학살의 사회구조적 요인 비교』)을 참고하였다.

6) 황석영, <차이나는 클라스-질문있습니다>, JTBC, 2017.9.6.

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목부터 알곳은 『낙타누갈』의 주인공은 정신신경성 노이로제 환자로 전투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조기귀국 중이다. 그런 그가 귀국선물로 준비한 것은 미국 달러나 레이션박스가 아니라 휴양지에서 구입한 아주 요사스러운 물건이다.

열 살 남짓한 소년들이 조심드레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서 이 외국인 병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애들에게 백동화 한 개씩을 나눠주었는데도 그들은 흠이러 하지 않았다. 그 중 제일 큰 아이가 내게로 은밀한 눈길을 던지며 손바닥으로 주먹을 치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던가. 그랬지, 다른 놈들은 배설 배설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애가 연신 손바닥으로 주먹을 치는 의미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내게 춘화 몇장을 보여주었고, 드디어는 콘돔과 여러 개의 비닐봉지를 꺼내어 내밀었다. 그 애들은 거의 정확한 우리말로 “낙타누갈 낙타누갈” 하면서 내게 그 물건을 떠맡겼지. 나는 그날 시가지에서 소년들이 또렷한 음성으로 낙타누갈이라면서 그걸 내밀어 보는 일을 세 번이나 겪었던 것이다. 지나가는 자들이 걸음을 멈추고 실실 웃음을 흘리며 구경하는 걸 보고 나는 얼결에 재빨리 집어넣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결국 그 물건을 샀다. 아이들은 건넌편 보도 쪽으로 물러가자마자 내게로 향해 팔뚝을 길게 늘어뜨려 흔들거나 이마를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음탕한 몸짓을 해 보였다. 그애들은 오랜 동안 키들대며 뭐라고 떠들었는데, 따이한 따이한 하는 말만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런 게 야유라고 생각되질 않았다. 다만 그 물건을 억지로 사게 된 뒷맛이 알곳고 떨떠름했으며, 그것의 고유명사가 낙타누갈이라는 우리말로 불려지는 것이 여영 개운치가 않았다.⁷⁾

미해군 사령부가 있는 베트남의 휴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곳 아이들의 주된 돈벌이는 외국인 병사들을 상대로 춘화를 비롯한 성 보조기구를 파는 것이다. 그런데 성 보조기구의 명칭이 하필 우리말로 불린다는 사

7) 황석영, 『낙타누갈』, 『삼포 가는 길』, 창비, 2000, p.119.

실과 자신을 향해 야유를 보내는 어린 아이들을 보며 주인공은 창피함을 느낀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느낀 『낙타누갈』의 주인공과 달리 베트남전에 파병된 많은 한국 군인들은 낯선 땅에서 이국 여자와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이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씩씩한 타이한들에게 발가벗은 온몸으로 헌신하는”(『하얀 전쟁 2부』, p.17) 베트남 처녀들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였으며, 그 결과 한국 군인들의 매춘 행위가 실제로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한국어로 이름 붙여진 ‘낙타누갈’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군인들이 만난 이들은 대부분 “타이한 소리만 들어도 영웅으로 생각하는 월남 처녀들”(『하얀 전쟁 2부』, p.17)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대낮에 돛자리를 들둘 말아들고 다니며 몸을 파는 이동 풍가이”(『하얀 전쟁』, p.21)들이었지만, 죽음의 공포와 억제된 욕망으로 가득한 군인들에게 그런 차이쯤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이렇듯 전사의 군인들에게 여성은 정복과 유희의 대상이었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위안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절정은 여성 포로를 상대로 나타났다. 송기원의 『경외성서』 역시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주인공은 앞서 『낙타누갈』의 주인공처럼 전쟁후유증으로 신경증을 앓고 있으며, 그 때문에 변태 성욕적인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한다. 주인공의 이런 변태 성욕적 기질 역시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주인공이 속한 부대는 베트남 은신처에 숨어 있던 여자를 찾게 되는데, 여자 포로를 잡은 부대원들은 어김없이 그녀를 희롱하기 시작한다.

“전과라고는 암놈 하나뿐이야.”

우리는 긴장을 풀고, 후우 긴 숨을 내쉬었다. 암놈은 우리 앞에 내팽개쳐졌다. 암놈은 마치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우리의 시선 속에서 가냘픈 몸뚱

아리를 뒤척이는 것이었다. 분대장은 키들거리며 암놈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암놈의 유방을 찌르기도 하고 껴안아보기도 하며 연방 키들거렸고, 그런 광경을 보며 우리는 헛헛, 해해 웃었다.⁸⁾

그러던 중 여자가 독침으로 분대장을 공격하자 결국 여자를 알몸으로 나무에 묶어 놓고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은 부대 관습에 따라 부대원 중 가장 신참인 주인공에게 맡겨진다. 이런 관습이 불문율처럼 내려온 것은 살인 경험이 없는 신참에게 살인을 가르침으로써 용맹심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군대에서의 폭력은 이런 방식으로 합리화되면서 전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망설이게 되고, 부대원들은 오히려 그런 그를 조롱하고 힐난한다. 결국 주인공은 살인에 성공하는데,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끼며 시체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있던 낙타눈썹을 여자의 성기 위에 있는 변태성욕적인 행위를 한다. 이처럼 한국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힌 여자 베트남은 적군이기보다는 그저 ‘암놈(여자)’에 불과했고, 이들에게 여자 포로가 잡힌 날은 오랜만에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날에 지나지 않았다.

황석영 만큼이나 작가의 실제 참전 경험이 소설로 이어진 것으로 유명한 안정효의 『하얀 전쟁』에서도 여성 포로를 성적 대상화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인 주인공 한기주가 과거 전우였던 변진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예전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전쟁에 대해 막연한 동경과 낭만을 품고 있던 한기주는 베트남전에 자원하는데,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전쟁터의 낭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생존의 정글이었다. 폭력과 광기로 가득한 전쟁을 경험하고 온 한기주는 귀국 후에도 당시의 기억으로

8) 송기원, 『경외성서』, 『다시 月門里에서』, 창작과비평사, 1984, p.270.

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베트남 여자 포로를 잡은 그 날의 기억도 그가 베트남에서 경험한 폭력과 광기의 기억 중 하나다.

내가 두더지를 들어갔던 바로 그 동굴의 아래쪽 어느 후미진 바위 턱 위에 엎드려 몸을 숨겼다가 윤칠복 일병에게 붙잡힌 여포로 판 띠 답은 놀랄 만큼 아름답고 어린 여자여서, 순식간에 우리 중대의 구심점이 되었다. 모든 병사의 관심이 당장 그녀에게로 쏠렸다.

“굴속에서 안 나오려고 반항을 하길래 젓통과 사타구니를 슬슬 만져주었더니 썩어 웃으며 잘 따라 나오네요.”

산돼지가 싱글거리며 몇 차례 되풀이한 농담을 듣고 병사들은 답의 옷을 훌렁 벗기고 몸수색을 하자고 야단법석을 부렸다. 전우들의 합의에 따라 윤 일병이 그녀의 검정 옷을 하나씩 벗기자, 당황한 답은 차마 저항을 못하고 나무 밑에 알몸이 되어, 손으로 젓과 아래쪽 중 어느 쪽을 가려야 할지 어쩔 줄 몰라 그냥 서서 엉겨주춤했다.⁹⁾

산에 숨어 있던 베트남들을 수색하던 중 발견된 여자 포로는 전쟁 중 적군에게 붙잡힌 군인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알몸 상태가 된 채 ‘미스 베트남’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져 놀림을 당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병사들이 이렇게 나체를 수색하는 이유는 “여자 베트남들이 가랑이 사이에 독침을 숨겨 가지고 다닌다는 맹랑한 소문이 무서워 조심이 되었기 때문”(『하얀 전쟁』, p.273)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가느다랗고 여린 여자의 몸매와, 조심스럽게 돌아오른 발그레한 젓가슴과, 살짝 올라왔다가 미끄러진 엉덩이를 솔직하게 구경하고 싶었을”(『하얀 전쟁』, p.274) 뿐이었다. 이렇듯 항시 죽음과 맞닿아 있는 전쟁이라는 예외적인 시공간에서 인간 대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그 상대가 여자일

9) 안정효, 『하얀 전쟁』, 세경, 2009, p.273.

경우에는 적군과 아군,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성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 여성 포로는 그저 성욕을 채우기 위한 군인들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 중 강간은 비단 포로로 잡혀온 적군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 수색을 위해 들어간 마을에서는 민간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도 버젓이 행해졌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 즉 작게는 가족이나 부족 더 나아가 국가나 민족의 소유물로 인식되었기에 여성에 대한 강간은 그 집단 전체에 대한 정복과 지배를 의미했다. 따라서 전쟁 중의 군인들은 아군의 사기 진작과 적군에 대한 승리의 의미로 민간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 강간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전시 강간은 개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기 보다는 아군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이자 전시 전략의 하나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¹⁰⁾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에게 성적 대상이 되는 여성은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이나 포로로 잡혀온 베트남만이 아니었다. 『하얀 전쟁』의 주인공 한기주는 난민수용소에서 만난 아이의 어머니 하이에게 호감을 느낀다. 하이는 베트남 군인이었던 남편이 전사한 후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로, 한기주와 하이의 관계는 총칼을 앞세운 전시강간도 거래로 이루어진 매춘도 아니다. 한기주는 “영어와 프랑스어와 베트남어가 뒤섞인 불결한 대화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할 듯싶은 마음을 두런두런 나누”고, “한국의 겨울과, 나쁜 전쟁과, 식어가는 밤의 대기와, 아끼는 사람이 함께 할 때의 푸근한 기쁨을 얘기”(『하얀 전쟁』, p.324)하는 관계로 하이

10) 실제로 베트남전쟁 당시 상당한 전시강간이 한국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기록은 김현아의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2004)에 자세히 나와 있다.

기억한다. 한기주는 레이션 강통과 PX에서 구입한 향수를 들고 하이의 집을 찾고, 하이는 그런 한기주를 위해 “착한 아내처럼” 정성껏 식사를 준비를 하는 등 그를 “최후의 희망”(『하얀 전쟁』, p.323)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하이에 대한 한기주의 진심은 “성실하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한 관계”(『하얀 전쟁』, p.323)일 뿐이다.

나는 하이의 정성이 애처롭다고 순간적으로 슬퍼했다. 나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그 사랑을 못 이겨 울며 고백하러 찾아왔을 때 느낌직한 그런 연민과 슬픔. 나에게서 하이가 분명히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는 정신적인 안식처요 전장에서 한때 누리는 잉여분의 낭만기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 나는 그렇게 믿었다. <…> 창녀와의 참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의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하이의 면회 내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갑작스럽고 묘한 충실감으로 가슴속이 뿌듯하게 찼다.¹¹⁾

하이와 착한 아내처럼 그를 대했지만 한기주의 생각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도피하는 일시적인 안식처와 낭만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창녀와의 참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이에 대한다. 사실 하이는 남편이 전사한 후 베트남 경찰의 첩이자 가끔씩은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 이 사실은 한기주로 하여금 하이와의 관계를 애초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이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한기주에게 자기와 아이를 껴안아 넣어 한국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세관 수속과 결혼의 어려움 따위의 변명만 잔뜩 늘어놓으며 거절한다. 사랑이나 낭만, 안식처 등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하이 역시 전장에서 흔히 볼

11) 안정효, 앞의 책, p.323.

수 있는 매춘여성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¹²⁾

낭만적 사랑이든 합의된 거래관계든, 혹은 전시공간이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들과의 관계들 상당수가 문제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 관계의 결과로 생겨난 아이들이다.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을 그리고 있는 방현석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서 주인공 건석의 형의 별명은 베트남이다. 형의 진짜 이름은 최건찬 혹은 우옌 카이호앙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건석의 아버지와 베트남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라이파이한’이다. 어린 시절 형은 언제나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었고, 동생인 건석 마저 그런 형을 부끄러워하며 ‘형이 집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기를 형이 보도록 써두기까지 한다. 이처럼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라이파이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건석의 형처럼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부정된 채 베트남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인을 뜻하는 ‘파이한’에 혼혈잡종이라는 경멸적인 의미의 ‘라이’가 결합된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상황 또한 그리 좋지 않다.¹³⁾

12) 이 소설들이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 군인들이 행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부정하거나 망각하지 않고 소설에 재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재현 과정에서 나타난 남성 작가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전시에 성행했던 성매매가 한국 군인들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여성포로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를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결국에는 주인공들 역시 성매매에 따라나서거나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가학적 성행위를 통해 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약자의 위치에 놓인 베트남 여성의 시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군인 남성의 시각으로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자신들의 관계를 그저 낭만적인 연인의 관계로 기억할 뿐이다. 이렇듯 문제적 상황이 소설을 통해 재현되고는 있으나 그 과정에는 여성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전쟁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남성 작가들의 한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논의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사된 존재인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베트남 사람들의 차별과 조롱을 그대로 감수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베트남전쟁과 한국과의 관계는 한국군이 철수한 1973년에 종료되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라이파이한들의 존재는 베트남전쟁과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Ⅲ. ‘타이한 제삿살’로 기억되는 베트남전쟁

『낙타누갈』에서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흑인 병사는 베트남 사람들을 향해 “이 더러운데서 우리는 너희 때문에 싸운다. 다친다. 죽는다”며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 과연 미군과 한국군은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다치고 죽은 것일까? 실상은 그들만큼이나, 아니 그들보다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쳐들어온 낯선 이들에 의해 죽어야 했다.

전쟁에서의 죽음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장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기간 동안 베트남 전역에서는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들의 죽음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우리가 흔히 베트남이라 부르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유격대원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게릴라전을 펼쳤고, 따라서 민간인과 유격대원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베트남전

13)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라이파이한은 현재 그 숫자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흥국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라이파이한 숫자는 최소 5천 명,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김광일, 『“적군 핏줄 라이파이한” 한국군 성폭행 피해자의 주홍글씨』, 『노컷뉴스』, 2017.11.14. <http://www.nocutnews.co.kr/news/4876433#csidx548bf9c57e0f190baa58dc3628b57b8>.)

에서 한국군의 주요 임무는 민간인 거주 지역 외곽에 전술기지를 설치하고 수색과 정찰, 매복 등을 통해 주민과 유격대원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베트남 주민들과의 접촉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를 공식 입장으로 내놓았다고 하지만, 참전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는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부에서는 마을이 유격대원들의 하부조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4) “백 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지침이 실제로는 한 명의 베트남을 잡기 위해 백 명의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상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베트남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황석영의 또 다른 소설 『돌아온 사람』에는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픈 두 개의 전쟁이 묘하게 겹쳐져서 그려진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역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인물로 귀국 후 고열과 불면 증에 시달리던 그는 정양을 위해 시골에 와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 한동네에서 자란 만수를 만나게 되는데, 만수는 그에게 돼지서리 계획을 털어놓는다. 만수가 말한 돼지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 편에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만수의 형은 그 사건으로 인해 미친 사람 되었다. 만수가 말한 돼지서리란 형을 그렇게 만든 자를 직접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이다. 형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주인공은 문득 베트남의 전장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을 떠올린다.

내 수색구역의 백토로 지은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텅 빈 공간에서 파리가 잉잉거리며 날아다녔다. 뒤꼍으로 가서 마당 한가운데 펼쳐진 짚명석을 들춰

14) 최정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 9(1), 2009, p.71.

다. 두 개의 독이 묻혀 있었고, 그 안에 누가 있었더라…… 마른 나뭇가지 같은 늙은이의 손이 한데 모아져 비벼대면서 내 발부리 앞으로 쏘았다. 내가 알고 있는 몇마디 말을 동원해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던 것 같다. 노인은 한없이 벌고만 있었다. 또 다른 독 속에는 발가벗은 아기를 품안에 감춘 비쩍 마른 소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아이는 구부려 세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아기의 입을 막은 채 소리를 죽여 울고 있었다. 나는 나오라고 또다시 재촉했다. 속눈썹 속으로 아리게 스며드는 땀방울, 말라붙은 혀, 멈춰선 사람에게 짓궂게 날아붙은 파리들, 아기의 입을 막고 고개를 묻은 소년의 흔들리는 어깨. 나는 기다랗게 혼잣말로 쌍육을 지껄이고 있었다. 쇠 끝에 손가락을 걸고 힘을 주었을 뿐이다. 두개골 속의 몽롱한 뇌수를 뒤흔들며 들려오기 시작한 연발 사격의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¹⁵⁾

주인공을 괴롭히는 기억 중 하나는 수색 작전 중 의식의 마비를 체험했던 경험이다. 마을을 비우고 나오라는 방송이 나오지만 이는 외국말로 된 방송일 뿐이며, 마을 사람들은 한국 군인들에게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 겨우 사람들을 난민수용소로 후송시키고 텅 빈 마을을 수색하던 주인공은 땅에 파묻어 놓은 독 속에 숨어 있던 노인과 아기를 안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사격을 가한다. 주인공이 발견한 이 노인과 소년이 물론 유격대원일리 없다. 하지만 소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그저 주인공의 의식이 잠깐 마비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은 쉽게 희생된 것이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전쟁의 기억은 이뿐만이 아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속한 부대의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포로로 잡혀 온 ‘탄’이라는 사내에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다.

15) 황석영, 『돌아온 사람』, 『객지』, 창비, 2000, p.117.

우선 그 녀석이 위축되도록 형경으로 두 눈을 가렸다. 침대 아래 쥐잡기부터 비행기태우기, 원산폭격, 한강철교, 한사람씩 제안할 때마다 방법이 가혹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가 실수를 하면 약간의 매를 때려줬다. 우리는 웃었다. 자꾸만 웃었다. 주위가 너무 조용해서 크게 웃지 못하는, 참는 웃음이었다. 우리는 웃으면서 맘을 뻘뻘 흘렸다. 드디어는 놈의 그것을 꺼내어 자기 손에 쥐게 하고 수음을 시켰다. 탄은 울었던 것 같다. 확실히 탄이란 녀석 흔찌검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더러운 자식!” 맥주를 그의 얼굴에 뿌리던 한사람이 담뱃불을 슬며시 놈의 그곳에 갖다댔을 때, 기다란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배를 쥐고 있던 동료의 목소리였다. 탄의 이빨은 동료의 손등을 피가 배어나도록 힘껏 물고 있었다.

“놔, 놓으란 말야.”

다른 사람이 떼어놓으려고 탄의 볼따구니를 여러차례 쳤지만, 놈은 이를 악물고 놓지 않았다. 손을 잡힌 자는 왼발을 뒤로 쳐들었다가 놈의 아랫배를 공격하듯 내차기 시작했다. 여러차례 만에 길게 내뿜는 숨소리가 나면서 탄의 몸이 옆으로 처졌다. 그는 눈을 홉뜨고 흰동공을 보이며 고개를 뒤로 떨구었다.¹⁶⁾

중학교 교원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스물다섯 살 난 처를 거느린 가장인 ‘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찾아볼 수조차 없는 고통을 가하면서 주인공을 비롯한 부대원들은 “자릿자릿한 기쁨”을 느끼기까지 한다. 아무리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고는 하나 포로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권리는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쟁포로에 관한 협약 따위는 죽음에의 공포와 증오로 가득한 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했다. 주인공을 비롯한 부대원들에게 베트남인 포로는 그저 자신들의 사적복수를 위한 대상이자 일상의 지루함과 전쟁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놀릿감에 지나지

16) 위의 책, pp.119-120.

않았다.

한국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더 참혹한 가해의 상황도 있다. 방현석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는 이른바 ‘박정희군대’라 불리던 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마을 전체가 희생된 사건이 그려진다. 베트남 주재 한국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인공 건석은 유창한 베트남어 실력 때문에 한국인 관리자들과 베트남인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날도 어김없이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김부장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공안국에 잡혀 가서까지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김부장 때문에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간다. 게다가 김부장이 싸운 상대는 과거 인민해방전선의 용사로 서른 두 개의 파편이 몸속에 박혀 있는 보 반 리이라는 조선소 노동자였기에 사건은 더욱 복잡해진다. 조선소 소장과 인민위원회 주석의 협상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한국인 관리자들의 반발로 보 반 리를 비롯한 베트남 직원 37명에게 진보발령이 내려진다. 이후 보 반 리는 사표를 제출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석은 사건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있던 공안국의 팜 반 꾀과 함께 리이를 만나러 그의 고향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마을의 비극과 리이의 아픈 가족사를 알게 된다.

“끼엣 아저씨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아저씨는 마을의 입구에 있는 스응씨네 집 땅굴에 파이한들이 수류탄을 던져넣는 것을 보았으니까. 땅굴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지 않아?” <…> 리이의 가족은 다른 마을사람들과 함께 떼 땅 김씨네 논 가운데로 끌려갔다.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젊은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장정들은 모두 산으로 들어가고 마을에 남은 것은 여자와 아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노인들뿐이었다. <…>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굶은 사탕과 먹을 것을 나누어주었다. 집에 질려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며 조금은 안도했다. 그러나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뜨거운 태양이 중천에 솟아올랐을 때 군인들은 사

람들에게 눈을 감고 논 가운데 모여서라 했다. 군인들이 타고 온 트럭의 포장이 걷어올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상황을 직감했다. 트럭 위에 설치된 것은 기관총이었다.¹⁷⁾

건석이 리이의 고향에서 우연히 목격한 마을의 비극은 모든 집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진기한 상황이었다. ‘따이한 제삿날’이라 불리는 그 날은 삼십 년 전 ‘박정희군대’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던 날이다. 집 마당의 땅 굴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한국 군대가 던져 넣은 수류탄에 죽어야 했고, 한국 군인에게 발각되어 끌려나온 이들은 논 한가운데서 기관총 세례를 받아야 했다. 자신들은 베트남이 아니라며 남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보여주어도 무참히 총알받이 되었다. 시체더미 속에서 겨우 살아난 리이는 자신의 뒷덜미를 잡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내달린 덕분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확인사살을 위해 던진 한국군의 수류탄에 죽고 만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마을 전체 주민 중 단 세 명뿐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대량 학살을 저지른 다음날 다시 마을을 찾아 임시로 묻어둔 시신과 아직 묻지 못한 시신을 모두 중장비로 밀어버리기까지 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온전한 시신이 아닌 겨우 뼈와 살점 몇 조각만으로 장사를 치러야 했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로만 이루어진 민간인들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수습하지 못하게끔 처리해버린 것은 적과의 교전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참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한 용병일 뿐이라고 한국군을 이해했던 마을 사람들조차 한국군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리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입대할 부대의 구호는 ‘한국군을 찢어죽이자’였다.

17) 방현석, 『랍스터를 먹는 시간』, 『랍스터를 먹는 시간』, 창작과비평사, 2003, p.144.

실제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은 베트남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 아이, 노인인 민간인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중화기를 난사하는가 하면 시신을 소각하거나 불도저로 밀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은 80여 건에 달하며 희생된 민간인 숫자는 무려 9천여 명 정도라고 한다.¹⁸⁾ 무엇보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학살의 충격으로 한국 사람들과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학살의 희생양이 된 곳에는 당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비가 세워졌는데, 그 비의 이름은 ‘한국군 증오비’이다.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빈호아 마을 입구에 세워진 증오비에는 “하늘에 가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한국군들은 이 작은 땅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저질렀다.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가옥과 무덤과 마을들을 깨끗이 불태웠다”는 비문과 함께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있는데 430명 중 268명이 여성이며, 그 중 7명은 임신한 상태였고 2명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그 중 182명은 어린 아이였으며, 109명은 노인이었다.¹⁹⁾ 전쟁에서 용인되는 살인은 무장한 군인들끼리 교전 중에 상대를 죽이는 것만 해당된다.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민간인 특히 노인과 여성, 어린 아이까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전쟁의 총부리는 무장을 하고 전투를 치르는 군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여성, 노인들을 향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겨누어졌으며, 그때 그 총

18) 이 또한 과거 베트남 당국이 조사한 바일뿐 추정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홍구, 『미안해요 베트남』, 『황해문화』 36호, 2002, p.5.)

19) 김광일, 『“죄악, 만대(萬代) 기억하리라” … 베트남의 ‘한국군 증오비’』, 『노컷뉴스』, 2017.11.15. (<http://www.nocutnews.co.kr/news/4877062>.)

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 군인들이었다.

황석영은 『낙타누갈』에서 과연 이런 상황을 두고도 “이 더러운데서 우리는 너희 때문에 싸운다. 다친다.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자문한다. 애초에 바나나와 망고만 먹고도 잘 살고 있던 나라에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와 평화롭게 살던 이들에게 총을 잡게 하고, 여성들을 거리로 내몰았으며,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사람 전부가 한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이 쥐어준 총을 들고 그들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아프게 묻고 있는 것이다.

IV. 사회적 금기에 대한 위반과 새로운 모럴로서의 문학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이 재현하는 베트남전에서의 한국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민간인 학살과 전시강간, 매춘 등 전쟁 영웅이나 애국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작가들이 기억하는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베트남전쟁이었다. 물론 참전 군인들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괴물로만 묘사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소설의 주인공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낙타누갈』의 주인공은 전투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노이로제 환자이며 『돌아온 사람』의 주인공도 귀국 후 고열과 불면증에 시달린다. 『하얀 전쟁』의 주인공 한기주는 전쟁 후 일상생활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며, 변진수는 정신착란증에 시달린다. 심지어 『경외성서』의 주인공은 신경증을 앓고 있는 변태성욕자로 그려진다.²⁰⁾

20) 본문에서 살펴본 텍스트는 모두 베트남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베트남전쟁과 그 전쟁에 참가했던 한국 군인들에 대한 시각은 작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장 두드러지는

일상생활에서는 예외적인 경험인 죽음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경험한 이들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평범한 일상의 삶에 복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정신질환이나 트라우마뿐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만 전체 참전군의 25%에 이르는 고엽제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은 물론이고 후대에까지 그 피해가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너무 가혹한 전쟁의 대가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이런 고통을 초래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자유월남에 대한 공산침략은 곧 한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우리의 월남지원은 바로 우리의 간접적 국가방위라는 확신에 의한 것”²¹⁾이라는 국가적 명분과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이들도 피해자인 셈이다.

그런 이들에게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임을 인정하기란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피해와 희생,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참전군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은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며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등의 말로 그러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해버린다. 일종의 집단적 방어기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군인들에 시선의 차이다. 황석영과 안정효, 송기원은 모두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가진 작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한국 군인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비판적으로 재현하되 참전했던 군인들 역시 신체적,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며 고통 받는 피해자였음을 함께 피력하고 있다. 이는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그들의 경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에 비해 방현석의 경우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세대가 아니며 전후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에 주목하는 만큼 적어도 그의 소설에서 재현되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모습은 다른 세 작가의 소설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모두 베트남전쟁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사건과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 그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1) 「박정희 대통령 담화문(1965.1.2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8, p.891.

제가 작동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의 존재는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었다. “공산화의 위기를 막아내는 데 일조”했으며,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는 데도 기여”하고,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정당화 되어야 했기에 베트남전쟁에 관한 사회적 기억에서 가해자로서의 부끄러운 경험은 은폐되어야 할 것이었다.²²⁾ 패배한 가해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한국 사회는 그 사건을 배제하고 지워가는 방식으로 사회의 공식적인 기억을 만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참전 군인들은 또 한 번 소외를 경험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만이 민간인 학살 문제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전장에 동원된 피해자라는 모순적인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국가가 침묵을 강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표명한 공식적인 역사 외에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 공식적인 역사 이외의 기억이나 발언은 곧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빨갱이’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금기에 맞서 공식 기억이 배제하고 억압한 대상을 기억하고 재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던 곳이 바로 문학이라는 장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가장 강력한 기억의 안정 기제로 언어를 꼽는다. 언어를 통한 기록은 다른 매체보다도 사건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사건을 현재화하는 데 유효한 매체이기 때문이다.²³⁾ 그런 이유에서 작가들은 문학이라는, 언어로 구축된 기억의 저장

22) 다양하고도 때로는 모순되는 수많은 개인기억을 거칠게 표준화하고 독점해 애국주의의 밑천으로 삼으려는 민족국가-제국주의 프로젝트는 세계 평화와 공존의 방해물이다. “기억은 오랫동안 민족주의적 욕망의 시녀였으며, 역사학은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 자문역을 담당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진우·김민경 외, 『호모 메모리스』, 책세상, 2014, p.250.)

23) 기억이 저장되는 공간으로서의 언어에 관해서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

공간에 공식적인 기억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대안적인 기억을 담아낸다. 이른바 ‘대항기억(counter-memory)’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항기억이란 국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역사나 담론과 다른 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학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대항기억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작가들이 베트남전쟁을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유 역시 공식적인 기억에 포함되지 못한 모습들, 특히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부끄러운 치부를 기억하는 대항기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작가들의 이런 노력은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쟁에서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공식적인 역사의 한계와 그 이면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역할로는 언론과 학계 등 여러 주체들이 있지만, 문학 역시 그 특유의 메타포와 서사적 기법 등을 활용해 때로는 위장된 형태로 또 때로는 직설적인 방식으로 공식적인 역사에 맞서는 역할을 자임해왔다. 베트남전쟁의 부끄러운 민낯 또한 언론이나 학계보다 문학이 먼저 공론화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억의 서술 주체가 대부분 피해자나 제3자인데 반해 문학을 통해 베트남전쟁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 즉 넓은 범주에서는 가해자 집단에 속했던 이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역사나 기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항기억은 언제까지나 대안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새로운 공식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5·18민주화항쟁과 4·3사건 등 공식적인 역사와 기억이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망각

했던 사건들이 문학이 구축한 대항기억들을 통해 공론화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공식 기억으로 부상하는 전례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공식기억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모럴의 정립을 수반한다. 베트남전쟁에 관한 이전의 공식기억이 영웅과 애국자의 이미지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새롭게 기억될 이미지에는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의 모습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곧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라는 새로운 모럴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금기가 공고해지고 확산되는 과정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동의와 긍정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그간 민간인학살 등 인권유린에 관한 기억이 공식화되지 못한 채 금기시 되었던 것은 정부의 의도뿐 아니라 스스로가 가해자의 일부가 되기를 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침묵과 외면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문학은 의도된 망각에 의해 배제되어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모럴이 반성과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공지영, 『맨발로 글목을 돌다』, 『맨발로 글목을 돌다: 제3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1.
- 방현석, 『랍스터를 먹는 시간』, 『랍스터를 먹는 시간』, 창작과비평사, 2003.
- 송기원, 『경외성서』, 『다시 月門里에서』, 창작과비평사, 1984.
- 안정효, 『하얀 전쟁』, 세경, 2009.
- 안정효, 『하얀 전쟁(제2부: 전쟁의 숲)』, 고려원, 1993.
- 황석영, 『낙타누갈』, 『삼포 가는 길』, 창비, 2000.
- 황석영, 『돌아온 사람』, 『객지』, 창비, 2000.
- 김현아,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2004.
- 이진우 · 김민경 외, 『호모 메모리스』, 책세상, 2014.
- 최정기, 『민간인 학살의 사회구조적 요인 비교』, 『민주주의와 인권』 11(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pp.321-346.
- 최정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 9(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pp.65-92.
- 한홍구, 『미안해요 베트남』, 『황해문화』 36호, 새얼문화재단, 2002, pp.2-15.
- 스탠리 코언,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창비, 2009.
-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Abstract**The Literature of Reflection and Reconstruction of Memory**

Kim, Kyung-min

For a long time, violence by the Korean soldiers during the Vietnam War has been the object of silence and taboo. Despite the fact that the Korean military slaughter of Vietnamese civilians was revealed by the press in late 1990, until now, the Korean official memory has not properly dealt with the Vietnam War. The Korean government might have felt ashamed to confess the slaughter as a government of defeated army. In the Korean public history, the Korean military was only recorded as the hero who defended our country against communists and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violence by Korean soldiers was excluded and ostracized in the history and statement about the violence was regarded as an infringement of the social taboo and was stigmatized.

Literature is like a place, where counter memories are formed, which stand against the taboo and remind of the events excluded from the official memory. Hwang Suckyoung's "Camel's Eyes", "A Returned Man", Ahn Junghyo's "The White War" and Bang Hyunseok's "The Time To Eat A Lobster" represent and criticize the problems created by Korean soldiers' sexual violence, Lai Daihan and slaughter of civilians. In this way, writers form the counter memories that expose shameful historical facts, which are intentionally excluded by nationalism. History and memory are not set in stone and can be reconstructed if it is necessary for the present, thus the counter memory formed by literature can also become the new official history. The new history always accompanies the new moral. While the previous official history is limited with the images of hero and patriots, and the new history needs to include the figure of inflictor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new history, we can learn to feel ashamed and regret our disgraceful past. That is the

new moral learned by new official history.

Key Word: Vietnam War, Social Taboos, Official Memory, Counter Memory,
Wartime Rape, Slaughter of Civilians

김경민

소속 :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조교수

전자우편 : redwine61@daum.net

이 논문은 2018년 10월 28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